

## 희망세상 (2007년 2월호 / 53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일 : 2007년 2월 1일
- 발 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독자마당 |

독자마당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도 좋습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희망세상』이 되겠습니다.

퀴즈

『희망세상』 2월호에 정답이 있습니다.

- 1 청화 스님은 과거 군사독재에 항거했고 현재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시국현안에 앞장서는 분입니다. 스님이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불교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 2 지난달 14일(일), 물고문을 당하다 스물세 살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둔 박종철 열사의 20주기 추모제가 이 곳에서 열렸습니다. 대간칩 수사업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하던 장소로 유명했던 당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3 1985년 종로 경찰서는 아랍미술관 전시장에 난입하여 전시 중인 작품 36점을 강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작가 19명을 연행했습니다. 이 전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월호 정답

- 1. 20년
- 2. 강만길
- 3. 모내기

1월호 퀴즈 당첨자

이서현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전중권 전남 순천시 서면  
설민영 전남 해남군 해남읍  
최수정 경북 김천시 조마면  
안수진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보내실 곳** 정답을 적어 2월 16일(금)까지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hope@kdemo.or.kr 『희망세상』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희망세상』 2007년 3월호에 발표합니다.

응모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첨된 분께는 문화상품권(3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후기



기대를 저 버리지 않는 『희망세상』이 되길…….

부조화 속의 조화랄까, 표지 사진의 은근한 매력에 이끌려 집어 들었던 『희망세상』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니, 1980년대 청년 시절에 품었던 생각과 이상은 간 곳이 없기만 한 내게 『희망세상』은 실로 오래간만에 삶을 돌아보게 하였다.

특히 강만길 선생의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일수록 자기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점도 드러내어 가르쳐 다음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불행한 경험이 많았던 20세기를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청산한 그 저력으로 21세기에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세기가 되기를 염원해 본다.

이제는 소시민으로 살고 있는 내게 사회와 역사를 돌아보게 해준 『희망세상』에 감사한다. 생활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도 버거워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돌아볼 겨를은 없지만, 1980년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던 우리 세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역사 발전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 지금처럼 『희망세상』이 그 기대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해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나중현(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독자께서 동치미와 직접 재배한 당근, 아콘을 『희망세상』 편집팀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귀중  
고마워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소식지가 점점 세콩달콩 하네요. 생 맘의 현상이 보입니다.

여기 자연 그대로의 동치미 한번 담가 보았습니다. 산동무들이 잡숫고 남은 당근 약간이오니 아콘과 같이 껍질 채 드실 수 있으시길…….

그럼 건강들 하세요.

산사에서,

07. 1. 16 하산 길에

김씨들(강원도 정선)